



4월8일
목요일

보도자료

생명의 땅은 품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실국	농식품유통과	과장	강종철	팀장	서동순	☎	286-6420
----	--------	----	-----	----	-----	---	----------

전남도, 서울시와 잡은 손 놓지 않고 상생한다

- 전남 친환경농산물, 서울시 공공급식 납품 3년 새 3배 상승 -

전남도가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한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납품 실적이 3년 새 3배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서울시 자치구와 농촌 지자체가 한 지역씩 인연을 맺어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 5~7단계 유통단계를 산지와 직거래 공급방식으로 축소하여 유통비용 절감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소비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나고 생산자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적정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남도에 따르면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에 나주시와 담양군, 강진군, 영광군이 선정되어 나주시-금천구, 담양군-성북구, 강진군-동작구, 영광군-중랑구와 1:1 매칭해 서울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에 친환경 식재료를 직거래 공급하고 있다.

전남도 2018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공급 실적은 286개소 15억 원에서 2020년 572개소 44억 원으로 3년 새 3배가 상승했다. 올해 서울시 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납품 목표는 520톤으로 4개 자치구, 954개 공공시설, 서울시민 4만9천명에게 전남산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전남도는 서울시 공공급식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시군에 산지 농수축산물 수집 및 서울까지 공급을 위한 물류비, 인건비,

차량운행비 등 운영비 6억4천만 원을 지원한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은 맑고 깨끗한 자연을 가지고 있어 맛 좋고 품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다.”며, “서울시 공공급식뿐 아니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품목 다양화, 산지 조직화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